

떠오르는 START Up (주)쉐어플랫



과수농가 운반 로봇 무브봇



사서로봇 북봇 (BookBot)



다용도 운반용 무브봇

AI·로봇 융합기술 혁신... 무인화 산업시장 이끈다

무인화 매장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무인로봇과 AI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받는 지역 스타트업이 있다. 2023년 1월 광주 북구 오룡동에 문을 연 ㈜쉐어플랫(대표 이지훈)이 그곳이다.

‘1인 1로봇 시대를 열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자

그는 퇴사 후 대기업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교육, 창업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창업의 꿈을 키웠다. ‘쉐어플랫(Share Plat)’은 공유한다(Share)와 플랫폼(Platform)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자가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표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담긴 서빙 로봇에 주목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공장등록을

쉐어플랫의 사업분야는 크게 로봇과 AI로 나뉜다. 우선 로봇은 여러 로봇이 충돌 없이 경로를 탐색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다중 에이전트 경로탐색 기능’과 로봇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V2X통신(Vehicle-to-Everything) 기술을 갖췄다.

AI는 ‘3D 카메라 트랙킹 추종 기술’, ‘추종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사람 자세인식 AI 모델’ 개발을 포함해 특허등록 5건, 특허출원 7건, SW등록 4건 등 18건의 지식재산권이 있다.

회사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 전남대학교, HD현대상호 등과 협업해 ‘무브봇(제조 부품·물품 등 운반용)’, 도서관리 사서로봇 ‘북봇(BookBot)’ 등 개발에 성공, 실증단계에 들어갔다.

그중 무브봇은 지정객체추종 기술, 음성인식 기술, 회귀 기술 등 이동 및 적재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과수농가 운반 로봇이다. 최대 400kg의 짐을 운반할 수 있고, 속도는 시속 5km이다.

이 로봇은 AI알고리즘과 3D 카메라를 활용해 농경지의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과수원 환경을 학습해 두둑, 고랑, 작물, 사람 등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한다.



이지훈 대표

한 과수원 환경을 학습해 두둑, 고랑, 작물, 사람 등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한다.

무브봇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운디바이스AI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봇(BookBot)은 AI와 카메라를 통한 책 제목·위치를 자동 식별하고 로봇팔을 통해 책 꺼내기, 집어넣기,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누군가의 조종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

투자역량 강화와 기업 간 네트워크,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광주 첨단3지구 AI집적단지에서 열린 광주시 주관 ‘제12회 AI 파트너십데이’와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참여해 제품과 기술을 직접 선보였다.

또 IR 피칭을 통해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 시장성을 투자자에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인재를 고용한 뒤 직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최근 직장 트렌드인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반영해 유연근무제 활용, 연차 사용 등을 장려한다.

회사의 중·장기적 목표는 2030년까지 매니플레이터 로봇 실증·판매, 홈 AI에이전트 로봇 실증·판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지훈 ㈜쉐어플랫 대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경험과 창의적인 구성, 편의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완성까지 우수한 기술인력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며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로봇·A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1인 1로봇’ 시대를 열고자 꾸준한 연구개발을 비롯해 자체 생산 개발 로봇·AI 플랫폼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중기부 과제 수행·전남대 등과 기술 협업
자세인식 모델 등 18건 지식재산권 보유
2030년 홈 AI에이전트 로봇까지 확대



자율주행 점원 로봇

체 생산 개발 로봇·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조·농업·국방·해운 업계에 자율주행 무인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지훈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컴퓨터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게임, 프로그램, 부품 조립 등에 관심을 가졌다.

아르바이트로 사회 경험을 쌓은 이 대표는 군 전역과 함께 대학교를 중퇴하고 30대 중반까지 대기업 협력사를 다니며 전산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개발에 참여했다.

한 뒤 협업형 물류 이송 시스템을 개발했다.

회사는 이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수농가 자율주행 운반 로봇’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LLM(거대 언어모델) 파지컬 AI(인공지능)’ 과제 등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맡았다.

광주TP, 에너지산업 기술교류 통합워크숍

정부 정책 공유·생성형 AI 특강 등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18~19일 여수 소노캣 호텔에서 주관·참여기관, 수혜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새 정부 에너지 산업 정책 변화에 맞춰 지역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 전력망, RE100 산업단지 등 광주시 에너지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6년 신규사업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며 지역 기업들의 정부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 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엔텍 정보기술, 동진기업㈜, 그리다에너지, ㈜다윈디앤에스, ㈜에스테테크 등 5개 수혜기업이 보유 기술과 제품, AI 기반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하며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실무자 대상 ‘바로 쓰는 생성형 AI 활용법’ 특강도 진행돼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18~19일 여수 소노캣 호텔에서 주관·참여기관, 수혜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에 접목하는 사례를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5급 3층 성장엔진산업 소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 방향(R&D·비R&D) 공유 △수행기관 간 진도점검 회의 등 사업 성과 제고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공동 지원하며, 광주TP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산업진흥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과 도시첨단산단을 성장 거점으로 삼아 에너지·미래차 연계

배터리 산업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단계 사업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일중 광주TP 융합기술본부장은 “이번 교류회는 새 정부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

GICON, ‘광주콘텐츠코리아랩 G.쇼케이스’

오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전시·체험·IR 데모데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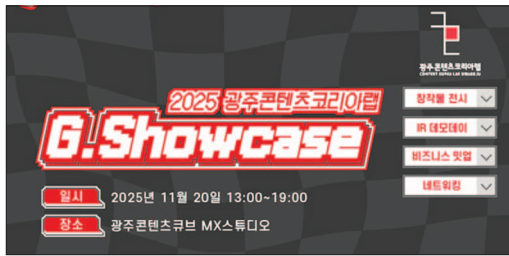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CION)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GICON WEEK(11월 20~21일) 첫날인 20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3층 MX스튜디오에서 ‘2025 광주콘텐츠코리아랩 G.Showcase’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광주콘텐츠코리아랩과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지역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확장과 사업화 기회 제고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시·체험, IR 데모데이, 1대1 비즈매칭, 네트워킹 등이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성과 전시·체험은 MX스튜디오에서 동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초기 창업기업 지원 ‘부스터 크리에이터(2단계)’ 10개 작품 △에비·신인 창작자 지원 ‘주니어 크리에이터(1단계)’ 10개 작품 △지역 웹소설 창작 활성화 프로젝트 8개 작품 △‘장르특화 콘텐츠 스킬업 교육’ 3개 과정(웹툰·웹소설·영상) 종합 전시 등 총 28개 이상의 작품이 공개된다.

‘2025 기획창작스튜디오×광주콘텐츠코리아랩



IR 데모데이’에는 △광주콘텐츠코리아랩 10개팀 △기획창작스튜디오 6개팀 등 총 16개팀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한다. 심사는 VC 및 콘텐츠 유통·브랜딩·출판 등 분야 전문가가 맡아 우수 기업(팀)을 선정한다.

이밖에도 10개 투자사 및 5개 에이전시와의 1대1 비즈매칭이 진행되며, 기업별 사업성, 유통·라이선스 전략,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해 실제 투자 및 후속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공동 쇼케이스는 두 제작자 원사업의 참여팀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 창작자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